

네덜란드
2024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안내

INVEST IN
Holland



외국인 투자 및 기업유치



목 차

● 법인세율 19% / 25.8%	4
● 이노베이션 박스: 9% 실효세율 적용	4
● 유럽본사 유치 노력의 일환인 참여면세제도	5
● 기업집단의 연결납세제도	5
● 결손금 1년간 소급공제, 무기한 이월공제	5
● 사전해석제도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	6
● R&D 투자 인센티브: R&D 인건비 공제(WBSO)	6
● MIA/Vamil: 친환경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7
● 에너지 투자공제(EIA):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련 세제혜택	7
● 외국인 근로자 대상 30% 비과세 제도	8
● 광범위한 조세조약망을 기반으로 이중과세 방지 및 원천세 감면	9
● 유럽연합 지침에 따른 혜택	9
●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금 원천세 면제	9
● 이자 및 로열티에 대한 원천세 면제	10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통한 현금유동성 확보 지원	10
● 세무당국의 개방성 및 접근성	11
● 세관당국의 실용적·예방적 접근법	11

법인세율 19% / 25.8%

2024년 기준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000 유로 이하: 19%
- 200,000 유로 초과: 25.8%

자체 개발한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특별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이노베이션 박스 참고).

이노베이션 박스: 9% 실효세율 적용

이노베이션 박스는 자체 개발한 무형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에 대해 9%의 실효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노베이션 박스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노베이션 박스 혜택을 받으려면 R&D 신고서 외에도 세액 공제 (WBSO) 신청 시 발급되는 R&D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특허, 전용실시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식물육종권, 약품 증명서 등 추가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9% 실효세율은 개발 비용 및 손실액을 초과하는 수익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무형자산의 개발 비용 및 무형자산으로부터 비롯된 손실은 통상 세율이 적용되는 수익에서 공제됩니다.
- R&D 활동의 상당 부분을 계열사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적용 대상 소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노베이션 박스 혜택의 적용여부는 선택 가능합니다.

유럽본사 유치 노력의 일환인 참여면세제도

- 참여면세제도는 네덜란드 법인세법의 주요 부분 중 하나로, 수 많은 기업이 유럽본사로 네덜란드를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참여면세제도는 적격 출자로 발생한 모회사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함으로써 기업 그룹 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이러한 이익에는 현금 배당, 현물 배당, 무상 증자, 은닉된 이익처분, 주식 처분 시 양도차익 등이 포함됩니다.
- 간접투자(portfolio investment)가 아닌 5% 이상의 지분참여의 경우, 면세 혜택 대상이 됩니다.

연결 납세가 가능한 재무적 공동체 과세제도

네덜란드 기업 (또는 네덜란드 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기업) 집단은 재무적 공동체 구성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공동체 구성회사의 소득을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과세제도입니다.

본 제도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체 구성회사의 손실이 다른 구성회사의 이익과 상계처리
- 공동체 내에서 한 구성회사의 자산이 다른 구성회사로 이전 시 법인세 면제
- 내부거래 제거

결손금 1년간 소급공제, 무기한 이월공제

2022년 1월 1일부로 기업 결손금의 소급공제 기간은 1년, 이월공제 기간은 무기한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단, 연간 공제액 한도는 최초 연간 과세소득 100만 유로까지이며, 그 이상에 대해서는 50%가 적용됩니다.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결손금이나 해당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결손금에 적용됩니다.

사전해석제도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

- 사전조세통칙 적용제도(Advance Tax Ruling, ATR)와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APA)는 네덜란드 조세법의 매력적인 부분이자 네덜란드 투자환경의 핵심 요소입니다. 사전해석제도의 목적은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조세처분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ATR은 국제 기업 구조에서 거래 관련 조세부담률에 대한 약정입니다. ATR은 조직이나 기업이 특정 상황에서 적용 받게 되는 네덜란드 세법 및 관련법령을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로 국제거래에 앞서 조세확실성을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참여 면세제도 적용 여부 확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APA는 특수관계기업 또는 조직이나 기업 내 부문간 재화 및 용역의 국제거래 시 적용되는 정상가격 범위,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대한 조세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 네덜란드 국세청은 APA 및 ATR 신청을 처리하는 국제조세 확실성 전담팀을 두고 있습니다.

R&D 인건비 공제(WBSO):

R&D 투자 인센티브:

- WBSO는 기업의 R&D 인건비 및 기타 비용의 일부를 보상해줌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줍니다.
- R&D 인건비 및 기타 비용은 350,000 유로까지는 32%를 공제하며, 그 이상에 대해서는 16%를 공제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350,000 유로까지 공제율은 40%로 더욱 높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친환경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MIA 및 Vamil)

- MIA 제도는 환경 친화적 투자에 대해 일반 투자 공제 외에도 투자액의 최대 45%를 공제해줍니다. 자산별 투자액은 최소 2,500 유로 이상이어야 합니다. 납세자별 연간 공제 한도는 5,000만 유로입니다.
- Vamil 제도는 기업이 적격 친환경 투자에 대해 관련 비용의 75%에 대한 감가상각을 즉시 실행할 수 있게 하여 유동성과 이자 이득을 제공합니다.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투자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 MIA/Vamil 혜택은 네덜란드 기업청(RVO)에서 매년 업데이트하는 적격 친환경 투자 목록(Environmental List) 상의 코드 설명을 충족하는 친환경 투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세제혜택(EIA)

- EIA는 RVO가 공시하는 에너지 리스트(Energy List)에 포함된 에너지 절감 설비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련 투자에 대한 지원제도입니다. EIA를 적용받는 기업은 에너지 비용 절감과 절세라는 두 가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 기업은 통상적인 감가상각비용 외에도 과세소득에서 투자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절감 투자는 최소 2,500 유로 이상이어야 하며, 공제받을 수 있는 투자액 한도는 납세자별 연간 1억 4,900만 유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 30% 비과세 제도

네덜란드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급여의 최대 30%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30% 비과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최대 5년간 제공되며, 기존에 네덜란드에서 체류 또는 근무했던 기간은 이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로 30%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최대 급여가 보수법 기준인 223,000유로로 제한됩니다. 2022년 12월 기준 본 혜택을 이미 적용 받고 있는 근로자는 2026년 1월까지 소득 상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0% 비과세 혜택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에 걸쳐 축소 조정됩니다. 최초 20개월 동안은 급여의 30%, 그 다음 20개월 동안은 급여의 20%, 마지막 20개월 동안은 급여의 10%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에 30% 비과세 혜택을 이미 적용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5년 기간 동안 30%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30% 비과세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는 네덜란드에서는 찾아볼 수 없거나 드문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급여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4년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총 급여 최소 46,107 유로(비과세 수당 제외)
 - 30세 미만 석사학위 보유자의 경우, 연간 총 급여 최소 35,048유로(비과세 수당 제외)
 - 과학자, 과학교육 종사자, 수련의의 경우, 최소 급여 기준 없음.
- 근로자는 고용 전 24개월 중 최소 16개월을 네덜란드 국경에서 반경 150km 밖의 해외에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해외에서 채용(파견)되어야 합니다.
- 고용주는 네덜란드 원천징수의무자이며, 네덜란드 세무당국의 긍정적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광범위한 조세조약망을 기반으로 이중과세 방지 및 원천세 감면

- 네덜란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배당금, 이자 및 로열티에 대한 원천세를 낮추기 위해(이자 및 로열티의 경우 보통 0%까지) 전 세계 100여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유럽 내 가장 광범위한 조세조약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 네덜란드가 체결한 대부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행한 모델조세조약을 따르고 있습니다.
-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네덜란드 측에서 일반적으로 이중과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연합 지침에 따른 혜택

유럽연합 회원국인 네덜란드는 다음과 같은 유럽연합 지침에 따른 혜택을 제공합니다.

- EU 모자회사 지침(EU Parent-Subsidiary Directive): 회원국 소재 모회사와 자회사 간 이익분배에 대한 조세장벽 제거
- EU 이자 및 로열티 지침(EU Interest and Royalty Directive): 회원국 소재 계열사 간 지급한 이자 및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금 원천세 면제

- 네덜란드 소재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세율은 15%입니다. 단, 네덜란드와 배당금 관련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내 적격 법인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원천징수가 면제됩니다.
- 2024년 1월 1일부로 최저세율 국가나 유럽연합 조세비협조국 목록에 속한 국가 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특정 조세 남용 사례에 한해 원천세가 부과됩니다.

이자 및 로열티에 대한 원천세 면제

- 네덜란드는 자국 소재 기업이 지급하는 이자 및 로열티에 대해 원천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소재 기업에게 지급된 이자 및 로열티의 경우, 보통 조세조약을 통해 원천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 단, 초저세율 국가나 유럽연합 조세비협조국 목록에 속한 국가 내 계열사로 이자 및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 특정 조세 남용 사례에 한해 원천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통한 현금유동성 확보지원

- 네덜란드는 유럽 내 물류국가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정기 부가세 신고 시기까지 수입부가세 납부를 유예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reverse-charge mechanism)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본 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세관수입 신고 시 부가세 납부와 환급이 동시에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납부할 부가세가 없어집니다.
- 네덜란드의 국내 사업자 또는 현지 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외국 사업자는 본 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덜란드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 사업자의 경우, 세무 대행업체(예: 제3자 물류서비스 업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의 개방성 및 접근성

- 네덜란드 국세청은 세법이 특정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외국인잠재투자자지원센터'(Liaison for Potential Foreign Investors)를 설립했습니다. 국제조세 확실성 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원센터는 외국투자자가 현재 계획 중인 사업과 관련된 세무문제를 사전에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 후 지출 및 행정 부담을 줄여줍니다. 외국투자자가 현재 계획 중인 사업과 관련된 세무문제를 사전에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조사관은 기업과 지원센터 간의 합의사항을 따르게 됩니다.
- 네덜란드는 전세계 100개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조세조약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조세조약망과 더불어 조세확실성 확보 가능성, 세무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는 네덜란드 소재 기업의 이중과세와 국제조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합니다. 국제조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네덜란드 국세청은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 네덜란드 국세청은 납세자에 대한 협력적인 태도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신뢰, 투명성,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납세자와의 발전적인 관계를 지향합니다.

세관당국의 실용적·예방적 접근법

- 유럽연합으로 반입되는 제품은 유럽연합 관세법 조항에 따라 반입 시점부터 통관대상이 됩니다. 세관당국은 정부기관의 신뢰성이 기업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 과정에서 기업에게 가장 적절한 통관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네덜란드 세관당국은 국제 무역 활성화와 관세절차 최적화를 위해 실용적이고 예방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네덜란드를 수입 기지로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